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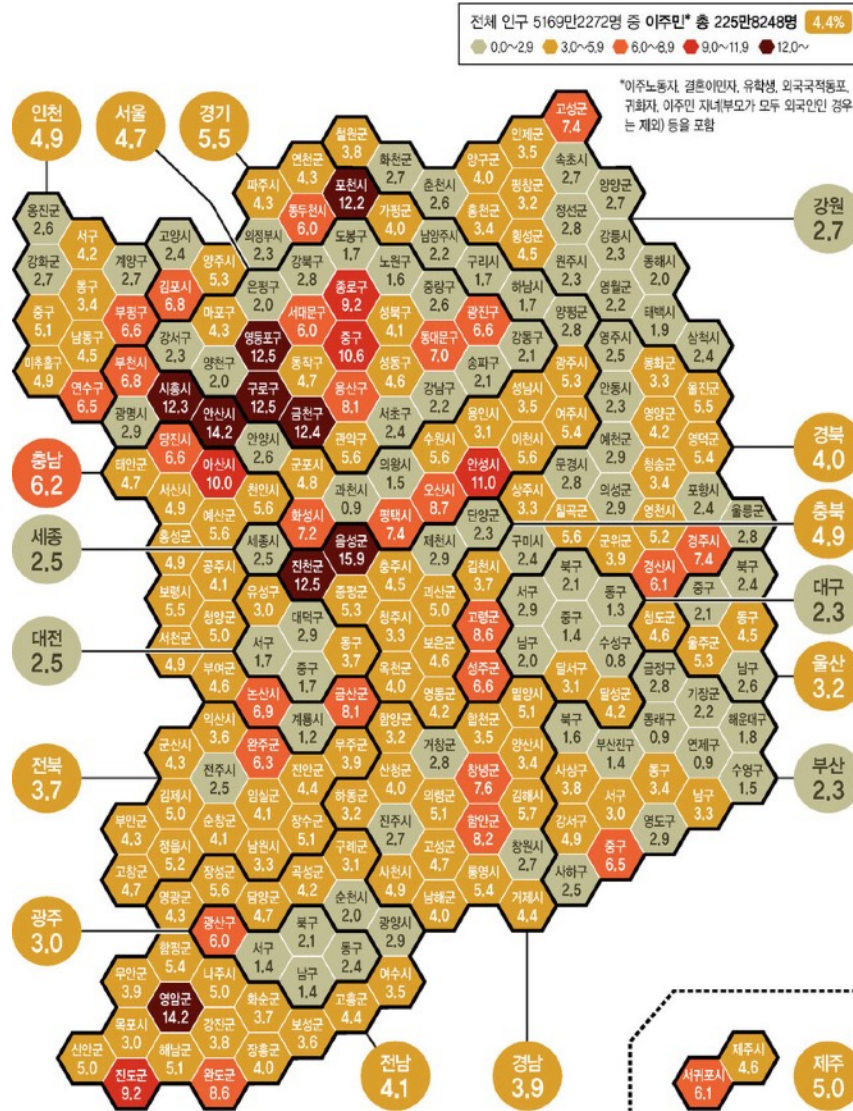


[한국의 지역별 이주민 실태]

한국 내 이주민, 전체 인구 중 4.4%!

- 한국 내 체류하는 이주노동자, 결혼이민자, 유학생, 이주민 자녀 등을 포함한 '이주민'은 2022년 11월 기준으로 약 226만 명인데,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4.4%에 해당한다. 시군구별 이주민 비율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.
- 2022년 기준 이주민 비율 1위는 '충북 음성'으로 15.9%로 나타났다. 그다음으로 이주민 비율이 높은 지역은 '경기 안산', '전남 영암', '충북 진천', '서울 영등포' 순이었다.

[그림] 시군구별 이주민 비율 (2022년 말 기준, %)



[표] 이주민 비율 (상위 5위)

1	충북 음성(15.9%)
2	경기 안산(14.2%)
3	전남 영암(14.2%)
4	충북 진천(12.5%)
5	서울 영등포(12.5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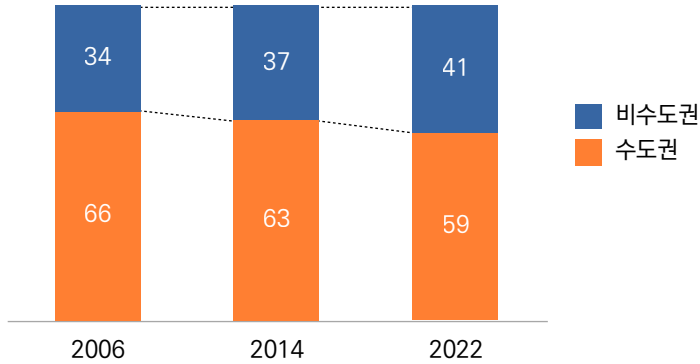
※출처 : 한겨레, 이주민 16년 새 4배...인구 빠져나간 지방에 '새로운 이웃'으로, 2024.06.17. (https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1145073.html)

※원출처 : 행정안전부,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.

인구의 수도권 쏠림으로, 이주민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점점 이동!

- 이주민의 수도권 거주 비율은 2006년 66%에서 2014년 63%, 2022년 59%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. 인구의 서울,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하는 사이, 이주민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파고들어 지방의 부족한 일손을 채우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.

[그림] 이주민의 수도권 거주 비율 (%)



※출처 : 한겨레, 이주민 16년 새 4배...인구 빠져나간 지방에 '새로운 이웃'으로, 2024.06.17. (https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1145073.html)